

☪ 법학 및 건축(공)학분야 평가 기준에 대한 공청회 개최

대교협은 1999년 8월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실시하게 될 법학 및 건축(공)학분야 평가와 관련하여, 동 분야의 평가기준에 대한 공청회를 1999년 11월 11일(법학)과 11월 12일(건축학) 이틀간 한양대학교에서 각각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교협의 법학 및 건축학 평가기준연구위원회가 개발한 평가기준(안)에 대해 평가대학의 해당분야 전공 학부장이나 학과장 1명씩을 초치하여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평가기준은 향후 대학의 자체평가와 대교협의 현지방문평가의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다.

☪ 200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대교협은 지난 11월 5일(금) 사학연금회관 20층 회의실에서 7명의 심의위원과 교육부·대교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00학년도 대학입학전형계획 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2000학년도 대학입학 모집요강의 주요사항을 심의하였으며 이후 심의결과를 해당대학에 통보한

후 발표했다.

☪ 2000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개최

대교협은 11월 26일(금)부터 11월 29일(월)까지 4일간 서울 무역전시장(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소재)에서 65개 4년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2000학년도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일부 사설기관에서 주관해 왔던 상업적 성격의 입시박람회에서 탈피하여 대학 진학을 앞둔 수험생 학부모 및 진학담당교사 등에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및 질의·응답과 전국 대학의 입학정보를 검색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65개 참가대학(국립대 3개교, 사립대 54개교, 산업대 8개교)은 국립·사립 구분없이 대학명 가나다순으로 독자적 부스를 구성하여 수험생과 관람객들의 상담 편의를 제공하고, 각 대학별로 모집요강 등 입학관련 책자와 안내서를 무료 배포했다. 아울러 대교협은 수험생들의 입학정보 욕구를 해소하고, 65개 참가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4년제 대학의 입학정보를 종합적으로 원스톱 제공하기 위해 중

합정보자료관을 운영하였다. 이를 위해 박람회장 내에 PC 50대와 LAN을 설치하고 수험생들이 직접 대학정보, 학과정보, 진로정보, 입학정보 등을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정보 종합검색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장에서 시연하였다.

☪ 제4회 대학교육정책포럼 개최

대교협은 숙명여대 후원으로 11월 25일(목) 숙명여대 수련교수회관 회의실에서 회원대학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대학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정책포럼의 주제는 "21세기 신 대학문화의 이념과 방향"으로서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이 "신 대학문화 창조운동의 이념과 방향"의 주제발표(Ⅰ)가 먼저 있고 이어서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의 "우리 나라 대학문화의 현황 및 발전방향"의 주제발표(Ⅱ)가 있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어서 참가자의 자유로운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있었다.

☪ 확대 회장단 간담회 개최

대교협은 12월 3일(금) 대교협 회의실에서 확대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는 12월 15

일에 개최된 제 98차 이사회에 상정 될 안전에 대한 사전 협의를 위해 마련되었는데,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제 2주기 대학평가 추진계획, 대학 입학정보박람회 개최 결과, 2000년도 대학입학 특별전형 인준제 도입 방안,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확대 회장단은 회장(현승일 국민대 총장), 부회장 3인(윤형원 충남대 총장, 장상 이화여대 총장, 노성만 전남대 총장) 그리고 교육대협의회장(최희선 인천교대 총장), 산업대협의회장(한기영 한경대 총장), 신학대협의회장(이재정 성공회대 총장), 대교협 사무총장(이현청 박사) 등 모두 8인으로 구성되었다.

☪ 2000년도 종합평가 대상대학 관계자 회의 개최

대교협은 12월 13일(월) 여의도 63빌딩 58층 회의실에서 2000년도 종합평가 대상대학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94년부터 시작한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의 마지막 연도인 2000년에 평가를 받을 25개 대학(일반대 15개교, 산업대 6개교, 신학대 4개교) 관계자 2명씩을 초청하여 평가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안내했다.

☪ 법원, "사립대 기성회비 징수 정당" 판결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구만희 부장판사)는 15일 경원대 학생 182명이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체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내지 않아 받게 될 제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낸 '학생지위보전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에 대학교는 기성회비를 징수할 권리가 있고 사립학교 제정의 기틀이 된다'는 학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원대는 기성회비를 내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촉구한 뒤 따르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학칙에 따라 제적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신용석 판사는 16일 김주현씨 등 한양대생 5명과 강성희씨 등 대진대생 6명이 각각 학교측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체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도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성회비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로 보는 게 그 명칭이나 논리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수십년동안 등록금을 내면서 아무런 의의없이 기성회비를 함께 납부해왔기 때문에 기성회비는 이제 등록금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 '2000년도 전국대학 교수 명부' 발간

대교협은 '2000년도 전국대학 교수명부'를 1999년 12월 23일에 발간하였다. 이 명부에는 1999년 10월 1일 기준 전국 204개 4년제 대학(14개 대학원대학, 2개 과학기술계 특수대학 포함)의 전임강사 이상 대학교수 45,211명에 대한 인적 사항(성명, 소속, 직급, 세부 전공, 출생년도, 학위, 임용기간)이 수록되어 있으며, 2,051쪽 분량의 제 1권은 대학별 교수명부, 그리고 428쪽 분량의 제 2권은 교수명 색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발간한 교수명부에 의하면, 전체 교수 45,211명 중 남자교수는 39,282명(86.9%)이고 여자교수는 5,929명(13.1%)이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37,289명(총장 182명 미포함)으로 82%이고 석사학위 소지자가 6,899명으로 15%이다. 아래의 표는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취득 국가별 현황이다.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교수 (%)	22,332 (59.9)	10,052 (27.0)	1,900 (5.1)	1,092 (2.9)
구분	프랑스	영국	기타	계
교수 (%)	616 (1.7)	329 (0.9)	968 (2.5)	37,289 (100)

☾ '21세기 대학선언문' 집필위원 제1차 회의 개최

대교협은 1월 6일(목) '21세기 대학선언문' 집필위원 제1차 회의를 대교협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대학이 나아갈 좌표를 설정하게 될 이 '21세기 대학선언문'은 지난 제98차 이사회('99.12.17)의 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28일에 개최할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에 위촉된 '21세기 대학선언문' 집필위원은 다음과 같다. 정범모 한림대 명예교수,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 이어령 이화여대 석좌교수, 김우창 고려대 영문학과 교수, 장희익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안병영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김광익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 등 8명이다.

☾ 대학 교·직원 연수

■ 대학 학생행정직 워크숍 개최

대교협은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대학 학생행정직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은 대학 행정 서비스의 마인드 확립과 학생 행정체제의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학생행정 전반에 대한 사례발표 및 분과토의와 학생행정 업무 담당자로서의 기본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구체적인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 대학 학생행정직의 과제와 행정직원의 역할 ▶ 대학 행정직의 고객만족과 이미지 메이킹 ▶ 뉴밀레니엄시대의 대학문화와 학생 행정체제의 혁신 ▶ 학생지원 행정체제와 광역학부제 운영 방안 ▶ 학생운동의 방향 재정립과 대학생 자치활동 ▶ 대학인의 자기개발과 리더십 등이다. 특히 분과토의 주제로는 장학업무의 현황과 발전방향, 학생복지의 과제와 전망, 대학생 봉사활동 지원대책, 학생지도의 방향과 과제 등으로 참가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졌다.

■ 대학 상·중급 행정직 워크숍 개최

대교협은 11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대학 상·중급 행정직 워크숍」을 개

최했다.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은 대학 정책방향에 따른 행정관리의 마인드 확립과 행정체제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대학 행정 전반에 대한 분과토의와 대학 행정관리자로서의 기본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구체적인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 뉴밀레니엄 시대 대학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 21세기 대학의 생존전략과 대학평가 방향 ▶ 대학 행정의 선진화와 업무프로세스 재구조화(BPR) ▶ 대학의 성공적 변화추진전략과 변화추진자의 역할 ▶ 일본의 고등교육 개혁 동향 ▶ 프리젠테이션 기법과 협상능력 개발 등이다.

■ 대학 사회봉사 교·직원 워크숍개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11월 18일부터 11월 20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 양양군 소재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99년도 대학 사회봉사 교·직원 정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대학의 사회봉사 파트너십'이란 주제로 대학과 정부, 기업, 복지기관, 시민단체, 초·중·고등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봉사 연계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구체적

인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 신 대학문화 창조와 사회봉사 ▶ 대학생 자원봉사 지도자 양성 및 역할 강화 ▶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발전방안 ▶ 대학과 각종 기관(정부, 기업, 복지기관, 초·중·고등학교, 시민단체)과의 사회봉사 파트너십 ▶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사례발표 등이었다.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소식 (대교협 수탁사업)

■ '99학년도 한국대학생 해외봉사 활동 평가 및 결과보고회 개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는 11월 24일(수) 오전10시부터 경원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99년도 한국대학생 해외봉사활동 평가 및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우리 대학생들의 국제경험과 봉사 능력향상 그리고 문화교류를 통한 국제친선과 상호이해 증진이라는 당초 봉사 목적에 대한 사후 평가와 아울러 향후 보다 더 알찬 봉사활동 성과를 거두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보고회는 교육부장관, 회장 및 임원, 해외현지 주관기관 대표, 후원기관 대표 그리고 금년도 해외봉사단 150여 명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장(패) 및 봉사

활동 인정증 수여, 모범봉사활동자 표창 및 사례발표, 비디오 감상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결과보고서인 『함께 걷는 젊은이들』이 함께 배포되었다.

☪ 대교협 발간 자료

■ '2000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자료 RM 제 99-11-186호)

대교협은 11월 13일 전국 186개 회원대학(대학 157개교, 교육대학 11개교, 산업대학 18개교)의 「2000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을 집계·분석하여 발표했다. 먼저 신입생 선발 일정별 대학현황을 보면, 특차모집은 150개교, 정시모집 '가'군은 63개교, '나'군은 73개교, '다'군은 50개교, '라'군은 28개교가 각각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그리고 수시모집은 93개교에서 실시하는 데 이는 예년에 비해 특기자, 추천자, 선효행자 전형 등 다양한 전형유형으로 확대되었고 모집인원도 거의 두 배로 증가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대교협은 전형유형별 및 모집단위별 인원과,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및 그 반영비율 등 회원대학의 신입생 입학전형 현황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2000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 요

강』책자 3,000부를 발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 배포하였다.

■ 2000년도 대학평가를 위한 5종의 편람 발간·배포

- 1999년도 대학 학문분야 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건축(공)학 분야 평가 편람 (자료 RM 제 99-12-187호)
- 1999년도 대학 학문분야 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법학 분야 평가 편람 (자료 RM 제 99-13-188호)
- 2000년도 대학 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대학 종합평가 편람 (자료 RM 제 99-6-181호)
- 2000년도 대학 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산업대학 종합평가 편람 (자료 RM 제 99-7-182호)
- 2000년도 대학 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신학계 종합평가 편람 (자료 RM 제 99-8-183호)

대교협은 1999년 12월 28일에 2000년도 대학 종합평가와 학문분야 평가를 위해 5종의 평가편람을 발간하여 해당대학에 배포하였다. 특히 이 5종의 평가편람에 각각 수록된 평가기준은 앞으로 대학에서의 자체평가와 대교협에 의한 서면 및 현지방문평가의 기준이 된다. 제1주기 대학종합평가의 마지막 연도인 2000년에 적용될 일반대학용 평가편람 배포 대상교는 15개교이며, 산업대학용 평가편람 배포 대상교는 6개교 그리고 신학대학용

평가편람 배포 대상교는 4개교이다. 이들 25개교는 각기 대학의 특성에 맞는 평가편람으로 자체평가를 수행한 후 2000년 9월 16일까지 최종보고서 12부씩을 평가지원

부로 제출해야 된다. 한편 2000년도에 실시되는 학문분야 평가대상인 법학부(과)의 91개교와 건축(공)학부(과) 98개교에서는 해당분야 평가편람으로 각각 자체평가

를 수행한 후 최종보고서 10부씩을 2000년 5월 13일까지 평가지원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문**